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15 권 제 4 호, (2007. 8), pp.661~676

아동복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 1960~2000년의 결혼사진에 나타난 아동복을 중심으로 -

김 재 숙 · 이 미 숙†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Periodical Change of Korean Children's Clothing
- Based on Wedding Pictures from 1960 to 2000 -

Jae Sook Kim and Mi Sook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7. 4. 5. 접수 : 2007. 8. 28.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iodical change of Korean children's clothing from 1960 to 2000. As valuable historical data, 794 children's clothing in wedding pictures in these periods were collected for this study. Research method was content analysis and frequency, cross table analysis, and χ^2 test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children's clothing in 1960s had very humdrum and limited design and plain pattern. And most of children in this period wore Western clothes of casual style. In 1970s, children's clothing was enriched in terms of design, pattern, color and ornament. However, clothing design for children was not developed yet, so form of children's clothing in this period was showed as duplication of adult clothing design. In 1980s, The children's clothing was developed with enhancement of the level of living. Various style and sophisticated design were appeared and design and size system for children were developed. With increasement of social interest of leisure and sports, casual style was especially popular in this period for both of children and adult in this period. In 1990, rapid decrease of birth rate resulted in parents' excessive interest and investment for their children. In this effects, children's clothing in 1990s had luxury, variou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Key words: children(어린이), clothing(의복), wedding picture(결혼사진).

Ⅰ. 서 론

복식은 인간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한 시대에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착용된 복식은 개개인들의 심리적인 측면과 함께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며,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등의 전반적인 시대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측면을 지닌다. 따라서 어떠한 시기에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널리 착용되는 복식은 인간행동과 그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유용

† 교신저자 E-mail : evanms@hanmail.net

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근대 이후, 일제의 지배, 제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등으로 혼란했던 시기를 보냈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집중적인 경제 개발 계획으로 본격적인 산업 발달이 시작되었다.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는 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한복에서 양복이 일상복으로 자리를 잡았으며[1],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의 개선은 물질적인 풍요, 기성복 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패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와 패션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한국 패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기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복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 시장을 살펴보면, 1955년 서울 베이비사가 최초로 아동복을 생산하여 판매한 이후로 1960년대에는 재래식 시장을 중심으로 아동복 시장이 형성되었으며[2], 그 이후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3]. 그러나 지금까지의 아동복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복 설계를 위한 사이즈 분석, 마케팅 측면에서의 아동복 구매 행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복 시장이 형성된 이후 우리나라 아동복의 변천사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잡지 광고가 아닌 실제 아동의 의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이 활성화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아동복의 시대적 변화 양상을 전체적인 스타일, 형태, 색상 등의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의복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복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시대적 배경과 아동복 시장에서의 변화경향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아동복 시장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급속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로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반에는 이전의 전통적인 한복에서 양장이 점차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양장업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아직 기성복이 일반화되기 않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맞춤복을 입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는 섬유산업의 발달과 함께 기성복 시장이 형성되었다. 맞춤복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패션에 대한 정보 교환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1961년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가 발족하였으며, 1962년에는 국내 최초 패션쇼가 개최되었고 최경자, 노라노, 앙드레 김 등이 자신의 의상을 패션 잡지를 통해 소개하는 등 디자이너의 활동이 활발해졌다[4]. 아동복은 1955년 서울 베이비사가 최초로 아동복을 생산하여 판매한 이후로 1960년대에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60년대의 아동복은 아직 영세한 가내 공업의 생산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꾸준한 판매 증가에 힘입어 아동복 제조업체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5].

1970년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계속된 실시와 새마을운동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었는데, 이에 따라 물질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해지고 이기주의가 확대되어 물질 축적과 과시적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물질적 성공주의가 생겨났다. 1970년대에는 매스미디어의 보급과 보편화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TV의 보급은 국내의 영상 문화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1970대 초반에 제일모직의 골덴니트나 화신산업의 레나운 등 기성복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하

1) 금기숙 외 9인, *현대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2002), pp. 223-225.
2) "2001년 유아동복 시장구조 분석," *삼성디자인넷* (2001년 5월 10일 [2007년 3월 2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
3) 이정희, "학령기 아동의 유행의복에 대한 이미지 지각과 선호의복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권 1호 (2005), pp. 75-86.
4) 금기숙 외 9인, *Op. cit.*, pp. 209-230.
5) 정현주, "유·아동복 유통 집약도," *한국의류학회지* 25권 6호 (2001). p. 1123.

면서 중반 이후에는 여러 대기업들이 기성복 업계에 참여하여 의복시장의 기성복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기성복 산업의 증가와 매스미디어의 보편화로 인해 패션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아동복은 1960년대에 성장한 재래식 시장을 기반으로 아동복 전문업체가 나타났으며, 대기업이 아동복 시장에 진출하였다. 1970년대는 아동복 브랜드 태동기로 삼성 맥그리거(75년), 뉴골든(76년), 엘덴(77년), 김민제(79년) 등 기성복 브랜드들이 등장하였다[6]. 그러나 이 당시의 아동복은 성인의 의복을 어린이의 사이즈로 축소한 형태로, 판탈롱, 블루진, 티셔츠, 프릴 달린 원피스 등의 성인 유행이 아동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아동에 대한 이해와 기성복 제조 기술의 부족으로 사이즈와 봉제, 디자인, 과잉 장식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7].

1980년대는 1986년 개최된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스포츠웨어가 유행하였으며, 의복이 캐주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출의 증가로 안정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이 여가를 중시하게 되었으며 개인의 취향도 감성화, 다양화, 개성화되었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패션 산업도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감도의 패션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해외 여행 자유화, 수입 자유화와 같은 개방 정책과 함께 외국과의 문화 접촉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해외 브랜드가 라이센스 형태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아동복 시장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출산율의 저하로 소수의 자녀를 독특하고 개성 있게 입히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 와서 아동복 시장이 유아복, 토들러복, 아동복으로 세분화되었으며, 해피아이(88), 한스와 그레텔(87), 뽐키드(84), 베이비또(89), 리틀브렌(89)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대거 진출하였다[8]. 이러한 기성복 브랜드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1980년대에는 아동복의 질적인 향상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어 디자인 개념, 치수, 규격화 시도 등의 전문화가 시도되었으며, 아동을 위한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는 정치 · 경제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시기였으며, 문화적으로는 다양성과 세계화가 강조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시장 개방 정책과 해외여행의 자유화 이후 한국 사회는 고급 소비가 커지고 사치성 수입 재화에 대한 소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 패션은 세계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TV, 패션 전문 채널 등의 케이블 방송, 전문 패션 잡지와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패션에 대한 정보가 널리 보급되어 패션을 더욱 빠르게 만들었으며, 개인 취향의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환경 친화적인 상품이 각광을 받게 따라 패션에서도 에콜로지가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게 되었다[9].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의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 변화와 유통 시장 개방으로 인한 해외 유명 상표 브랜드의 수입, 외국 대형 할인 유통점의 국내 상륙으로 의류 상품의 판매 경로와 유통이 다원화되었다. 또한, 케이블 방송을 통한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 등도 중요한 유통 경로로 등장하였다. 한편, 90년대 초반의 과시적 소비 현상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며, 합리적 소비가 중요시됨에 따라 중저가 패션 시장이 새롭게 성장하였다. 1990년대 아동복은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자녀의 개성을 독특하게 연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신세대 주부들의 요구와 더불어 유 · 아동복 시장이 활성화되어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자녀에의 투자심리로 소수 자녀들을 위한 고가의 의류 구입량이 늘어났으며, 내셔날 브랜드가 주도하던 아동복 시장에서 오시코시, 베에르 가르멘, 파올로 구찌, 베이비 게스 등과 같은 직수입 의류 브랜드 및 라이센스 브랜드가 대거 진출하여 다양화, 고급화, 차별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10]. 1990년대를 통틀어 아동복 시장은 트랜드 변화가 점점 빨라

6) "2001년 유아동복 시장구조 분석," *Op. cit.*, p. 4.
7) 금기숙 외 9인, *Op. cit.*, p. 261.
8) 박규원, 조윤아, "유 · 아동복 브랜드 디자인에 관한 연구," *시각디자인학연구* 11호 (2002), pp. 156-158.
9) 금기숙 외 9인, *Op. cit.*, pp. 295-297.

지면서 브랜드의 다양화, 세분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감성의 디자인이 제안되었고 만화 주인공 등의 캐릭터가 아동복 시장에 도입되었다[11].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 산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잡지 광고에 등장한 아동복이 아닌, 그 당시 실제 아동이 착용한 의복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혼 가족 사진에 나타난 아동의 의복 차림을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결혼 가족 사진을 연구 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1960년대나 70년대 초반과 같은 과거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사 이외에는 일반가정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고, 사진에 나타난 아동의 모습도 상반신만 나오거나 얼굴 중심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의복차림을 조사하기 힘든 반면, 결혼식 사진은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맨 앞줄에 정면으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아 아동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결혼 사진은 총 351장으로, 수집된 사진 중에서 의복의 형태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정면의 전신 모습이 나타난 아동의 의복만을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사진에 나온 정확한 아동의 연령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8~13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판단되는 아동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의 수는 총 794명(남자: 429명, 여자: 365명)이었다. 한편,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흑백사진이 사용되었으므로, 아동복 분석시 색상에 대한 분석은 70년대 이후의 사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의 의복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는 내용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시기를 구분하여 그 시기에 해당되는 아동 사진을 분류하여 맵핑한 후, 각 시기별 아동복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의류학 전공자들로 구성된 준거집단과의 토론을 거쳐 각 시기별 아동복의 전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아동 사진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로 선정된 각 아동의 의복 차림은 의복의 종류(양복, 한복)와 격식 수준(정장, 캐주얼), 의복 아이템(외의, 상의, 하의, 신발)의 형태, 무늬, 색상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코딩되었다. 형태는 각 아이템(외의, 상의, 하의, 신발)별로 구분하여 정하였고, 무늬는 형태에 따라 민무늬, 줄무늬, 체크무늬, 점무늬, 기하학적 무늬, 동물무늬, 식물무늬, 자연무늬, 추상무늬 등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색상은 색상 계열별로 구분하여 빨강계열, 주황계열, 노랑계열, 초록계열, 파랑계열, 보라계열, 갈색계열, 검정색, 흰색, 회색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코딩된 연구 자료는 내용 분석 과정시 개입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통제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얻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각 시기별 아동 의복의 형태, 격식 수준, 아이템별 특성을 알아보고, 둘째, 아동복의 색상, 무늬, 형태 및 의복의 종류 등이 각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셋째, 아동복의 색상, 무늬, 형태 및 의복의 종류 등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녀 아동의 한복 차림을 서양복과 구별하여 형태, 무늬, 색상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ver. 11.5)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시대별 아동복의 특징

10) 구양숙, 이승민, 박현희, "신세대 주부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아동복 상표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권 4호 (2000), pp. 308-316.

11) 김희숙, "국내 유·아동복 시장의 동향 분석," *복식* 22호 (1994), pp. 177-191.

1) 1960년대 아동복의 특징

1960년대 결혼식 사진에 나타난 아동복을 살펴보면, 외복의 전체적인 형태는 주로 성인 의복과 비슷하였으며, 의복 스타일은 유니폼이나 제복 같은 느낌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아동의 의복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여 결혼식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의복이 캐주얼한 일상복 차림이었다.

1960년대의 경우는 결혼식 사진에서 가족 사진을 안 찍는 경우가 있어 아동 사진을 구하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 어려운 관계로 연구 자료로 사용된 아동 사진이 비교적 적어 일반화된 시대적인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그 당시 아동복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의복 형태를 살펴보면 서양 의복이 보편화되어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양장을 하고 있었다. 결혼식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어린이(76.7%)들은 캐주얼한 차림을 하고 있어 어린이들은 성인과는 달리 결혼식이라는 상황적인 특성에 따른 의복 규범이 중요하게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격식 차림 정도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χ^2=4.47, P<0.05), 남아(13.8%)보다는 여아(42.9%)의 경우가 결혼식 상황에 따라 격식 차린 의복을 더 많이 착용하였다.

외의로는 점퍼보다는 자켓이나 코트가 많이 착용되었고, 상의는 남아는 티셔츠의 착용이 많은 반면, 여아는 티셔츠와 남방(또는 블라우스)의 착용이 거의 절반씩으로 나타났다. 하의 형태에서는 남아는 모두 바지를 착용하므로 여아의 하의 형태만을 살펴보았는데, 바지(57.1%)가 치마(42.9%)보다 좀 더 많이 착용되었다. 신발은 남아는 거의 대부분이 운동화 차림이었고, 여아는 운동화보다 구두를 신은 경우가 좀 더 많았다.

무늬는 외의, 상의, 하의 모두 민무늬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이 시기의 사진은 모두 흑백사진이었으므로 색상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1970년대 아동복의 특징

1970년대 아동복은 성인의 유행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의복이 많이 착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아동복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색상과 무늬가 사용되었으며, 장식적인 측면이 발달된 것이 70년대 아동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결혼식이라는 상황적 측면

〈표 1〉 1960년대 아동복에 대한 분석 n=45(%)

측정내용			남자 (n=29)	여자 (n=16)	전체 (n=45)	측정내용			남자 (n=29)	여자 (n=16)	전체 (n=45)
의복 형태		양복	29(100.0)	14(87.5)	43(95.6)	상의	형태	원피스	0(0.0)	1(7.1)	1(2.4)
		한복	0(0.0)	2(12.5)	2(4.4)			기타	7(25.0)	2(14.3)	9(21.4)
격식 차림		정장	4(13.8)	6(42.9)	10(23.3)		무늬	민무늬	14(58.3)	11(78.6)	25(65.8)
		캐주얼	25(86.2)	8(57.1)	33(76.7)			줄무늬	7(29.2)	1(7.1)	8(21.1)
외의	형태	점퍼	2(16.7)	0(0.0)	2(12.5)			체크무늬	0(0.0)	0(0.0)	0(0.0)
		자켓	4(33.3)	1(25.0)	5(31.3)			기타	3(12.6)	2(14.2)	5(13.1)
		코트	6(50.0)	1(25.0)	7(43.8)	하의	형태	바지	28(100.0)	8(57.1)	36(85.7)
		조끼	0(0.0)	1(25.0)	1(6.3)			치마	0(0.0)	6(42.9)	6(14.3)
		가디건	0(0.0)	1(25.0)	1(6.3)		무늬	민무늬	24(96.0)	12(92.3)	36(94.7)
	무늬	민무늬	4(57.1)	4(100.0)	8(72.7)			줄무늬	1(4.0)	0(0.0)	1(2.6)
		줄무늬	0(0.0)	0(0.0)	0(0.0)			체크무늬	0(0.0)	1(7.7)	1(2.6)
		체크무늬	3(42.9)	0(0.0)	3(27.3)			기타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신발	형태	운동화	17(94.4)	3(37.5)	20(76.9)
상의	형태	티셔츠	15(53.6)	6(42.9)	21(50.0)			구두	1(5.6)	5(62.5)	6(23.1)
		남방	6(21.4)	5(35.7)	11(26.2)			기타	0(0.0)	0(0.0)	0(0.0)

〈표 2〉 1970년대 아동복에 대한 분석 n=302(%)

측정내용			남자 (n=162)	여자 (n=140)	전체 (n=302)	측정내용			남자 (n=162)	여자 (n=140)	전체 (n=302)
의복 형태		양복	162(100.0)	130(92.9)	292(96.7)	상의	색상	노랑계열	12(12.0)	6(8.1)	18(10.3)
		한복	0(0.0)	10(7.1)	10(3.3)			초록계열	1(1.0)	4(5.4)	5(2.9)
격식 차림		정장	37(22.8)	33(25.4)	70(24.0)			파랑계열	22(22.0)	8(10.8)	30(17.2)
		캐주얼	125(77.2)	97(74.6)	222(76.0)			보라계열	0(0.0)	3(4.1)	3(1.7)
외의	형태	점퍼	43(41.3)	19(25.0)	62(34.4)			갈색계열	6(6.0)	3(4.1)	9(5.2)
		자켓	47(45.2)	20(26.3)	67(37.2)			무채색	40(40.0)	15(20.4)	55(31.6)
		코트	9(8.7)	26(34.2)	35(19.4)	하의	형태	바지	139(100.0)	84(69.4)	222(85.7)
		조끼	3(2.9)	5(6.6)	8(4.4)			치마	0(0.0)	37(30.6)	37(14.3)
		가디건	2(1.9)	6(7.9)	8(4.4)		무늬	민무늬	116(85.3)	86(72.9)	202(79.5)
	무늬	민무늬	73(68.2)	60(77.9)	133(72.3)			줄무늬	10(7.4)	5(4.2)	15(5.9)
		줄무늬	7(6.5)	5(6.5)	12(6.5)			체크무늬	5(3.7)	18(15.3)	23(9.1)
		체크무늬	25(23.4)	10(13.0)	35(19.0)			기타	5(3.7)	9(7.5)	14(5.5)
		기타	2(1.9)	2(2.6)	4(2.1)		색상	빨강계열	2(2.3)	31(43.1)	33(20.9)
	색상	빨강계열	11(17.5)	15(35.7)	26(24.8)			주황계열	1(1.2)	3(4.2)	4(2.5)
		주황계열	3(4.8)	2(4.8)	5(4.8)			노랑계열	4(4.7)	6(8.3)	10(6.3)
		노랑계열	2(3.2)	0(0.0)	2(1.9)			초록계열	3(3.5)	3(4.2)	6(3.8)
		초록계열	2(3.2)	6(14.3)	8(7.6)			파랑계열	17(19.8)	13(18.1)	30(19.0)
		파랑계열	7(11.1)	2(4.8)	9(8.6)			보라계열	1(1.2)	0(0.0)	1(0.6)
		보라계열	1(1.6)	2(4.8)	3(2.9)			갈색계열	22(15.6)	4(5.6)	26(16.5)
		갈색계열	12(19.0)	7(16.7)	19(18.1)			무채색	36(41.9)	12(16.7)	48(30.4)
		무채색	25(39.6)	8(19.0)	33(31.4)	신발	형태	운동화	67(55.8)	23(25.0)	90(42.5)
상의	형태	티셔츠	110(71.4)	73(59.3)	183(66.1)			구두	40(33.3)	54(58.7)	94(44.3)
		남방	33(21.4)	19(15.4)	52(18.8)			기타	13(10.8)	15(16.3)	28(13.2)
		원피스	0(0.0)	21(17.1)	21(7.6)		색상	빨강계열	8(11.0)	32(59.3)	40(31.5)
		기타	11(7.1)	10(8.1)	21(7.6)			주황계열	0(0.0)	1(1.9)	1(0.8)
	무늬	민무늬	86(63.7)	76(71.0)	162(66.9)			노랑계열	2(2.7)	1(1.9)	3(2.4)
		줄무늬	25(18.5)	9(8.4)	34(14.0)			초록계열	1(1.4)	1(1.9)	2(1.6)
		체크무늬	14(10.4)	5(4.7)	19(7.9)			파랑계열	12(16.4)	3(5.6)	15(11.8)
		기타	10(7.3)	17(15.7)	27(11.0)			보라계열	0(0.0)	1(1.9)	1(0.8)
	색상	빨강계열	14(14.0)	32(43.2)	46(26.4)			갈색계열	17(23.3)	3(5.6)	20(15.7)
		주황계열	5(5.0)	3(4.1)	8(4.6)			무채색	33(45.2)	12(22.2)	45(35.3)

을 고려하여 격식 차림을 한 아동의 수가 60년대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정장이나 한복 차림 등의 격식 차린 의복과 함께 운동화가 착용된 경우가 많았다.

외의 형태로는 점퍼, 자켓이 많이 착용되었고, 여아의 경우는 코트 차림도 많았다. 60년대에는 민무늬가 압도적이었는데 반해 70년대에는 다양한 무늬가 사용되었다. 외의 무늬를 살펴보면, 민무늬가 여전히 많았으나 체크무늬(19.0%)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줄무늬, 기타 무늬 등 다양한 무늬가 사용된 것으

로 보인다. 70년대부터는 칼라 사진이 사용되어 색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의 색상으로는 무채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빨강계열, 갈색계열이 많이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외투 색상으로 무채색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으며, 특히 회색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는 외투 색상으로 빨강계열(35.7%)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χ^2=17.35, P<0.05).

상의 형태는 남녀 아동 모두 티셔츠를 많이 착용하였으며, 여아는 남아에 비해 다양한 상의 형태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9.19, P<0.001). 상의 무늬는 역시 민무늬(66.9%)가 가장 많았으나 줄무늬, 체크무늬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타 무늬 중에서는 남아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여아는 꽃무늬와 같은 식물무늬를 많이 사용하였다. 상의 색상으로는 무채색이 가장 많이 착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빨강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χ^2=34.68, P<0.001), 남아는 흰색(26.5%)과 파랑계열(22.0%)을 많이 착용하는 반면, 여아는 빨강(43.2%)과 흰색(14.9%)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하의 형태를 보면 바지를 착용한 경우가 치마를 착용한 경우의 약 2배로 나타나, 60년대보다 바지의 착용이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70년대 나타난 유니섹스 의복의 유행으로[12] 성인 의복의 유행을 따라한 아동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때문으로 보여진다. 하의 무늬는 민무늬가 대부분이며 체크무늬와 줄무늬도 비교적 자주 사용되었다. 하의 색상으로는 남아는 무채색(41.9%), 갈색계열(25.6%), 파랑계열(19.8%)을 많이 착용하였으며, 여아는 빨강(43.1%), 파랑(18.1%), 무채색(16.7%)이 많이 착용되었다.

신발에서는 남아의 경우, 여전히 운동화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여아의 경우는 구두의 사용이 더 많았으며, 결혼식 상황을 고려한 격식 차린 의복의 증가와 함께 남녀 아동 모두 구두의 사용이 60년대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 색상은 남아의 경우는 무채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여아의 경우는 빨강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3) 1980년대 아동복의 특징

1980년대에는 아동복 디자인이 개성화되었으며, 성인과 차별화된 의복 형태를 보이고 있어 아동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관심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늬와 색상의 사용은 전 시기보다는 덜 다양해지면서 좀 더 세련된 감각을 나타냈다. 지난 시기에 보였던 과도한 장식적인 디자인이 사라지고 단순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남아와 여아의 의복 스타일이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결혼식 상황에 따른 격식 차린 의복을 착용한 아동의 수는 오히려 지난 시기에 비해서 감소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상황의 증가로 인해 스포츠와 레저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패션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여진다.

외의 형태는 남녀 아동 모두 점퍼가 가장 많이 착용되었으며, 민무늬를 선호하였다. 색상은 무채색 계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아는 파랑계열과 갈색계열을, 여아는 빨강계열과 파랑계열을 비교적 많이 착용하였다. 상의 형태로는 남녀 아동 모두 티셔츠가 가장 많이 착용되었으나, 여아는 원피스를 착용한 경우도 34.0%로 나타났다. 무늬에서는 여자는 민무늬가 대부분(76.2%)이었으며, 남아는 민무늬(58.1%) 외에 줄무늬나 체크무늬도 많이 사용되었다. 상의 색상은 무채색, 빨강, 파랑의 순으로 착용빈도가 높았는데, 남아는 파랑(25.6%), 회색과 노랑(14.0%), 빨강(11.6%)을, 여아는 흰색(39.0%), 빨강(29.3%), 주황(9.8%)을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6.15, P<0.01).

여아의 하의 형태는 바지와 치마가 절반 수준이었고, 남녀 아동 모두 민무늬를 주로 착용하였다. 색상은 남녀 아동 모두 무채색과 파랑계열이 비교적 선호되었는데, 파랑계열에 대한 남녀 아동의 공통적인 선호는 청바지의 인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신발은 남아는 운동화, 여아는 운동화와 구두를 많이 착용하였으며, 남아는 무채색과 갈색계열을, 여아는 무채색과 빨간색 계열을 선호하였다.

4) 1990년대 아동 의복의 특징

1990년대에는 아동복이 패션화, 고급화되는 경향

12) 금기숙 외 9인, *Op. cit.*, pp. 248-250.

〈표 3〉 1980년대 아동복에 대한 분석 n=116(%)

측정내용			남자 (n=64)	여자 (n=52)	전체 (n=116)	측정내용			남자 (n=64)	여자 (n=52)	전체 (n=116)
의복 형태		양복	60(93.8)	51(98.1)	111(95.7)	상의	색상	노랑계열	6(14.0)	2(4.9)	8(9.5)
		한복	4(6.3)	1(1.9)	5(4.3)			초록계열	1(2.3)	0(0.0)	1(1.2)
격식 차림		정장	3(3.3)	15(29.4)	17(15.3)			파랑계열	11(25.6)	3(7.3)	14(16.7)
		캐주얼	58(96.7)	36(70.6)	94(84.7)			보라계열	0(0.0)	0(0.0)	0(0.0)
외의	형태	점퍼	36(76.6)	13(52.0)	49(68.1)			갈색계열	3(7.0)	2(4.9)	5(6.0)
		자켓	6(12.8)	6(24.0)	12(16.7)			무채색	15(34.9)	18(43.9)	33(39.2)
		코트	1(2.1)	6(24.0)	7(9.7)	하의	형태	바지	59(100.0)	26(52.0)	85(78.0)
		조끼	4(8.5)	0(0.0)	4(5.6)			치마	0(0.0)	24(48.0)	24(22.0)
		가디건	0(0.0)	0(0.0)	0(0.0)		무늬	민무늬	45(83.3)	40(83.3)	85(83.3)
	무늬	민무늬	35(74.5)	24(88.9)	59(79.7)			줄무늬	7(13.0)	6(12.5)	13(12.7)
		줄무늬	4(8.5)	1(3.7)	5(6.8)			체크무늬	1(1.9)	1(2.1)	2(2.0)
		체크무늬	4(8.5)	0(0.0)	4(5.4)			기타	1(1.9)	1(2.1)	2(2.0)
		기타	4(8.5)	2(7.4)	6(8.2)		색상	빨강계열	0(0.0)	6(14.0)	6(7.1)
	색상	빨강계열	2(5.6)	5(22.7)	7(12.1)			주황계열	0(0.0)	3(7.0)	3(3.6)
		주황계열	0(0.0)	0(0.0)	0(0.0)			노랑계열	1(2.4)	3(7.0)	4(4.8)
		노랑계열	6(16.7)	1(4.5)	7(12.1)			초록계열	0(0.0)	2(4.7)	2(2.4)
		초록계열	2(5.6)	4(18.2)	6(10.3)			파랑계열	12(29.3)	7(16.3)	19(22.6)
		파랑계열	11(30.6)	4(18.2)	15(25.9)			보라계열	0(0.0)	2(4.7)	2(2.4)
		보라계열	0(0.0)	2(9.1)	2(3.4)			갈색계열	8(19.5)	2(4.7)	10(11.9)
		갈색계열	5(13.9)	1(4.5)	6(10.3)			무채색	20(48.8)	18(41.8)	38(45.3)
		무채색	10(27.8)	5(22.7)	15(25.8)	신발	형태	운동화	34(72.3)	17(47.2)	51(61.4)
상의	형태	티셔츠	40(70.2)	23(46.0)	63(58.9)			구두	3(6.4)	14(38.9)	17(20.5)
		남방	3(5.3)	5(10.0)	8(7.5)			기타	10(21.3)	5(13.9)	15(18.1)
		원피스	0(0.0)	17(34.0)	17(15.9)		색상	빨강계열	0(0.0)	8(27.6)	8(12.1)
		기타	14(24.6)	5(10.0)	19(17.8)			주황계열	1(2.7)	0(0.0)	1(1.5)
	무늬	민무늬	25(58.1)	32(76.2)	57(67.1)			노랑계열	0(0.0)	2(6.9)	2(3.0)
		줄무늬	9(20.9)	3(7.1)	12(14.1)			초록계열	1(2.7)	0(0.0)	1(1.5)
		체크무늬	7(16.3)	2(4.8)	9(10.6)			파랑계열	5(13.5)	1(3.4)	6(9.1)
		기타	2(4.6)	5(12.0)	7(8.2)			보라계열	1(2.7)	2(6.9)	3(4.5)
	색상	빨강계열	5(11.6)	12(29.3)	17(20.2)			갈색계열	5(13.5)	0(0.0)	5(7.6)
		주황계열	2(4.7)	4(9.8)	6(7.1)			무채색	24(64.8)	16(55.1)	40(60.6)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 시기에 비해 의복과 어울리는 모자, 가방, 신발 등의 각종 소품이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또한, TV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의 사용이 이 시기의 아동복에서 특징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의복 스타일 또한 더욱 다양화, 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결혼식이라는 상황에 맞게 아동복에서도 격식 차린 의복 형태가 더욱 발전하여 남녀 아동 모두에게 있어 다양한 스타일로 제시되었으며, 한복 차림도 다른 시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는데 특히 여아의 경

〈표 4〉 1990년대 아동복에 대한 분석 n=331(%)

측정내용			남자 (n=174)	여자 (n=157)	전체 (n=331)	측정내용			남자 (n=174)	여자 (n=157)	전체 (n=331)
의복 형태		양복	155(89.1)	133(84.7)	288(87.0)	상의	색상	노랑계열	4(3.9)	1(1.1)	5(2.6)
		한복	19(10.9)	24(15.3)	43(13.0)			초록계열	4(3.9)	0(0.0)	4(2.1)
격식 차림		정장	18(11.7)	50(37.6)	68(23.7)			파랑계열	24(23.3)	6(6.7)	30(15.6)
		캐주얼	136(88.3)	83(62.4)	219(76.3)			보라계열	1(1.0)	2(2.2)	3(1.6)
외의	형태	점퍼	58(60.4)	17(28.8)	75(48.4)			갈색계열	2(1.9)	1(1.1)	3(1.6)
		자켓	19(19.8)	14(23.7)	33(21.3)			무채색	55(53.5)	51(57.3)	106(55.2)
		코트	5(5.2)	15(25.4)	20(12.9)	하의	형태	바지	146(100.0)	58(47.5)	203(76.0)
		조끼	11(11.5)	9(15.3)	20(12.9)			치마	0(0.0)	64(52.5)	64(24.0)
		가디건	3(3.1)	4(6.8)	7(4.5)		무늬	민무늬	122(87.1)	93(79.5)	215(83.7)
	무늬	민무늬	66(71.0)	45(71.4)	111(71.2)			줄무늬	4(2.9)	4(3.4)	8(3.1)
		줄무늬	10(10.8)	2(3.2)	12(7.7)			체크무늬	4(2.9)	7(6.0)	11(4.3)
		체크무늬	7(7.5)	2(3.2)	9(5.8)			기타	10(7.1)	13(11.3)	23(8.9)
		기타	10(11.0)	14(22.3)	24(15.4)		색상	빨강계열	3(3.1)	25(29.4)	28(15.5)
	색상	빨강계열	9(12.9)	13(31.0)	22(19.6)			주황계열	0(0.0)	5(5.9)	5(2.8)
		주황계열	0(0.0)	0(0.0)	0(0.0)			노랑계열	1(1.0)	2(2.4)	3(1.7)
		노랑계열	3(4.3)	0(0.0)	3(2.7)			초록계열	9(9.4)	1(1.2)	10(5.5)
		초록계열	6(8.6)	2(4.8)	8(7.1)			파랑계열	24(25.0)	12(14.1)	36(19.9)
		파랑계열	12(17.1)	3(7.1)	15(13.4)			보라계열	2(2.1)	3(3.5)	5(2.8)
		보라계열	1(1.4)	3(7.1)	4(3.6)			갈색계열	12(12.5)	2(2.4)	14(7.7)
		갈색계열	6(8.6)	3(7.1)	9(8.0)			무채색	45(46.9)	35(41.2)	80(44.2)
		무채색	33(47.1)	18((42.8)	51(45.5)	신발	형태	운동화	94(72.3)	41(39.0)	135(57.4)
상의	형태	티셔츠	108(71.5)	65(50.4)	173(61.8)			구두	28(21.5)	60(57.1)	88(37.4)
		남방	33(21.9)	22(17.1)	55(19.6)			기타	8(6.2)	4(3.8)	12(5.1)
		원피스	0(0.0)	34(26.4)	34(12.1)		색상	빨강계열	5(5.7)	10(14.1)	15(9.4)
		기타	10(6.6)	8(6.2)	18(6.4)			주황계열	0(0.0)	6(8.5)	6(3.8)
	무늬	민무늬	89(66.4)	86(74.1)	175(70.0)			노랑계열	1(1.1)	0(0.0)	1(0.6)
		줄무늬	21(15.7)	6(5.2)	27(10.8)			초록계열	0(0.0)	1(1.4)	1(0.6)
		체크무늬	10(7.5)	6(5.2)	16(6.4)			파랑계열	5(5.7)	3(4.2)	8(5.0)
		기타	14(10.4)	18(15.5)	32(12.8)			보라계열	0(0.0)	0(0.0)	0(0.0)
	색상	빨강계열	13(12.6)	23(25.8)	36(18.8)			갈색계열	5(5.7)	1(1.4)	6(3.8)
		주황계열	0(0.0)	5(5.6)	5(2.6)			무채색	72(81.9)	50(70.5)	122(76.7)

우에는 당의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여 선호되었다.

1990년대는 이전 시기와 다르게 남녀 아동 모두에서 한복과 정장 스타일의 의복 착용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이전 시기에서는 결혼식 상황임에도 아동복은 대부분이 일상복 차림이었는데, 1990년대에 와서는 아동복이 패션화, 다양화, 세분화됨에 따라 성인뿐 아니라 아동의 경우에도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 때문이라 여겨진다.

외의 형태는 남아의 경우 점퍼가 가장 많이 착용되었으나, 여아는 점퍼, 자켓, 코트, 조끼 등 다양한

형태가 착용되었다. 무늬는 여전히 민무늬가 우세하였으나 남아의 경우 줄무늬도 자주 사용되었고 기타 무늬로 남아는 기하, 추상무늬를, 여아는 동·식물무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의 색상으로는 남녀 아동 모두 무채색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성별을 구별하여 살펴보면, 남아는 검정(27.1%), 파랑계열(17.1%), 흰색(14.3%), 빨강계열(12.9%)을, 여아는 빨강(31.0%), 검정(19.0%), 흰색(14.3%) 등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형태로는 남아는 티셔츠(71.5%), 남방(21.9%)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여아는 티셔츠(42.8%), 원피스(26.4%), 남방(17.1%) 등을 많이 착용하였다. 무늬는 여전히 민무늬가 우세하나 다양한 무늬가 고루 보여졌다. 상의 색상으로는 남녀 아동 모두 무채색 중 흰색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남아는 파랑계열을, 여아는 빨강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하의 형태는 바지와 치마가 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의 무늬는 남녀 아동 모두 민무늬가 가장 많았다. 하의 색상은 남녀 아동 모두 무채색이 가장 높았으나 선호하는 색상은 달라, 남아는 하의 색상으로 검정색(22.9%)을 선호한 반면, 여아는 흰색(24.7%)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아동에서 가장 선호된 색은 남아는 파랑계열(25.0%), 여아는 빨강계열(29.4%)이었다.

신발은 남아는 운동화가 구두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으나, 여아의 경우는 운동화(39.0%)보다 구두(57.1%)를 착용한 경우가 더 많았다. 신발 색상은 남녀 아동 모두 무채색을 선호하였는데, 검정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 아동복의 시대별 비교분석

각 시대별로 아동복을 형태, 색상, 무늬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복 형태에서는 1990년대가 이전 시기에 비해 한복을 착용한 경우가 많았다(χ^2=24.2, P<0.001). 이것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아동복이 다양화, 세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 선행 연구[13,14]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 아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아동의 의복도 다양해짐에 따라, 성인들에게 한복이 예복으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결혼식 상황을 고려하여 의복을 착용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외의에서는 형태(χ^2=51.9, P<0.001), 무늬(χ^2=53.2, P<0.001), 색상(χ^2=55.3, P<0.001)에서 시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형태에서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로 오면서 캐주얼한 외의 형태가 점점 증가했다. 이것은 60년대 이후 점차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위한 캐주얼한 의복이 선호된 사회적 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또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활동성을 고려한 의복 디자인이 중시된 때문이라 여겨진다. 한편, 1990년대는 캐주얼한 의류가 선호되긴 하지만 다른 시기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형태가 착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복에서의 패션화, 다양화,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한 형태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보다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소비자 집단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이 선호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외의 무늬에서는 민무늬가 모든 시기에 걸쳐 가장 선호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체크무늬는 점차 감소되는 반면 추상무늬, 동·식물무늬, 기하무늬 등 기타 다양한 무늬의 사용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의 색상에서는 모든 시기에 걸쳐 무채색과 빨강계열, 파랑계열이 한국 아동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색상으로 나타났으나, 1970년대는 갈색계열이, 1980년대는 노랑과 초록계열이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으며, 1990년대는 무채색에 대한 선호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70년대는 무채색 중에서 회색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80년대는 흰색을 가장 선호한 반면, 90년대는 검정색이 가장 선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의에서는 형태(χ^2=37.1, P<0.001)와 색상(χ^2=48.0, P<0.05)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시기에 걸쳐 아동에게는 티셔츠가 가장 많이 착용되었

13) 이정희, *Op. cit.*, pp. 75-86.
14) 김희숙, *Op. cit.*, pp. 177-191.

〈표 5〉 아동복의 시대별 비교분석 n=794(%)

측정내용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χ^2 값
의복형태		양복	95.6	96.7	95.7	87.0	24.2***
		한복	4.4	3.3	4.3	13.0	
격식차림		정장	23.3	24.0	15.3	23.7	3.9
		캐주얼	76.7	76.0	84.7	76.3	
외의	형태	점퍼	12.5	34.4	68.1	48.4	51.9***
		자켓	31.3	37.2	16.7	21.3	
		코트	43.8	19.4	9.7	12.9	
		조끼	6.3	4.4	5.6	12.9	
		가디건	6.3	4.4	0.0	4.5	
	무늬	민무늬	72.7	72.3	79.7	71.2	53.2***
		줄무늬	0.0	6.5	6.8	7.7	
		체크무늬	27.3	19.0	5.4	5.8	
		기타	0.0	2.1	8.2	15.4	
	색상	빨강계열		24.8	15.0	21.7	55.3***
		주황계열		4.8	0.0	0.0	
		노랑계열		1.9	11.7	2.6	
		초록계열		7.6	10.0	7.0	
		파랑계열		8.6	25.0	13.0	
		보라계열		2.9	3.3	3.5	
		갈색계열		18.1	10.0	7.8	
		무채색		31.4	25.0	44.4	
상의	형태	티셔츠	50.0	66.1	58.9	61.8	37.1***
		남방	26.2	18.8	7.5	19.6	
		원피스	2.4	7.6	15.9	12.1	
		기타	21.4	7.6	17.8	6.4	
	무늬	민무늬	65.8	66.9	67.1	70.0	23.9
		줄무늬	21.1	14.0	14.1	10.8	
		체크무늬	0.0	7.9	10.6	6.4	
		기타	13.1	11.0	8.2	12.8	
	색상	빨강계열		27.4	22.5	23.4	
		주황계열		4.5	6.7	3.2	

측정내용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χ^2 값
상의	색상	노랑계열		10.1	9.0	3.2	48.0*
		초록계열		3.9	1.1	2.7	
		파랑계열		16.8	15.7	14.4	
		보라계열		1.7	0.0	2.3	
		갈색계열		5.0	5.6	1.8	
		무채색		20.7	39.2	49.2	
하의	형태	여자 바지	57.1	69.4	52.0	47.5	12.6**
		여자 치마	42.9	30.6	48.0	52.5	
	무늬	민무늬	94.7	79.5	83.3	83.7	37.3*
		줄무늬	2.6	5.9	12.7	3.1	
		체크무늬	2.6	9.1	2.0	4.3	
		기타	0.0	5.5	2.0	8.9	
	색상	빨강계열		22.4	8.0	21.5	42.9**
		주황계열		2.4	3.4	2.4	
		노랑계열		6.1	4.6	3.8	
		초록계열		5.5	2.3	4.8	
		파랑계열		18.2	23.0	17.7	
		보라계열		0.6	2.3	2.9	
		갈색계열		15.8	11.5	6.7	
		무채색		29.1	44.3	37.1	
신발	형태	운동화	76.9	42.5	61.4	57.4	35.8***
		구두	23.1	44.3	20.5	37.4	
		기타	0.0	13.2	18.1	5.1	
	색상	빨강계열		32.6	11.8	10.5	93.3***
		주황계열		0.8	1.5	3.5	
		노랑계열		2.3	2.9	0.6	
		초록계열		1.6	1.5	0.6	
		파랑계열		11.6	10.3	4.7	
		보라계열		0.8	4.4	0.0	
		갈색계열		15.5	7.4	3.5	
		무채색		24.9	60.3	76.7	

* 표 안에 제시된 수는 백분율임.

으며, 1980년대는 다른 시기에 비해 남방의 착용이 적었고, 원피스는 70년대 이전에 비해 80년대 이후에 많이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색상에서는 무채색에 대한 선호 경향이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의에서는 무채색 중 흰색이 모든 시기에 걸쳐 가장 선호되었다. 하의에서는 형태(χ^2=12.6, P<0.01), 무늬(χ^2=37.3, P<0.05), 색상(χ^2=42.9, P<0.01)에서 모두 차이가 있었다. 여아의 하의 형태를 살펴보면,

1970년대가 다른 시기에 비해 여아의 바지 착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유니섹스 스타일이 유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무늬는 모든 시기에 걸쳐 민무늬가 가장 선호되었으나 1970년대는 체크무늬가 선호된 반면, 1980년대는 줄무늬가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하의 색상으로는 무채색이 가장 많이 착용되었는데 1970년대는 흰색, 회색, 검정색이 고루 분포된 반면, 80, 90년대에는 회색은 거의 착용되지 않았다. 또한, 80년대의 경우에는 빨강계열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보다 적게 착용된데 비해 파랑계열은 많이 착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도 형태(χ^2=35.8, P<0.001)와 색상(χ^2=93.3, P<0.001)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80년대는 다른 시기에 비해 구두의 착용은 적고 샌달, 부츠 등 외 여러 형태의 신발이 많이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신발 색상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강계열, 파랑계열, 갈색계열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무채색에 대한 선호경향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복의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아동 의복의 패션 경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측정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 형태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한복을 많이 착용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의복의 격식 수준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격식 차린 의복 형태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의를 살펴보면, 남아는 여아보다 점퍼를 선호한 반면, 여아는 남아보다 코트를 선호하였으며, 다양한 의복 형태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줄무늬나 체크무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는 꽃무늬와 같은 동·식물 무늬에 대한 선호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색상에서는 남아는 여아보다 무채색과 파랑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여아는 빨강계열과 초록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를 살펴보면 남아는 티셔츠에 대한 선호 경향이 강하고, 여아는 티셔츠, 원피스, 남방 등이 골고루 착용되어 비교적 다양한 의복 형태를 보였다. 무늬에서는 상의 무늬도 외의 무늬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여 남아는 줄무늬나 체크무늬를, 여아는 꽃무늬와 같은 동·식물무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에서는 여아는 빨강계열을, 남아는 파랑계열을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를 살펴보면, 무늬에서는 남아는 민무늬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은 반면, 여아는 체크무늬와 기타 다양한 무늬를 남아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 색상에서는 남아는 무채색과 파랑계열을 선호한 반면, 여아는 빨강계열에 대한 선호가 남아에 비해 매우 높았다.

신발에서는 남아는 운동화를 선호한 데 비해 여아는 구두를 더 선호하였고 색상에서는 남녀 아동 모두 무채색을 선호하였으나, 남아는 갈색, 파랑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여아는 빨강색에 대한 선호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4. 아동의 한복 차림에 대한 분석

결혼식 상황임을 고려하여 한복을 착용한 남녀 아동의 의복은 서양복과 구별하여 따로 분석하였다. 한복을 착용한 아동의 수는 비교적 적긴 하나, 전체적인 경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아동의 경우, 외의(두루마기)를 착용한 수는 1990년대 여아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의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고 상의, 하의, 신발을 형태, 색상, 무늬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남아의 한복 차림에 대한 분석

남아가 한복을 착용한 경우는 1980년대와 90년대에서만 나타났고 교차분석 결과, 시기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전체적인 경향만을 알아보았다.

상의 형태로는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착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무늬는 민무늬가 일반적이었으나 기하무늬와 추상무늬도 나타났고 색상은 주로 빨강계열이 선호되었다.

하의 무늬는 민무늬가 대부분이었으며, 상의와 마찬가지로 빨강계열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조사된 모든 남아가 한복차림에 운동화를 착용하였는데, 색상은 흰색과 검정색이 많았다.

2) 여아의 한복 차림에 대한 분석

〈표 6〉 아동복의 성별에 따른 비교 분석 n=794(%)

측정내용			남자 (n=429)	여자 (n=365)	χ^2 값
의복 형태		양복	406(94.6)	328(89.9)	6.44 **
		한복	23(5.4)	37(10.1)	
격식 차림		정상	83(19.4)	141(38.6)	35.97 ***
		캐주얼	345(80.6)	224(61.4)	
외의	형태	점퍼	139(53.7)	49(29.9)	47.71 ***
		자켓	76(29.3)	41(25.0)	
		코트	21(8.1)	48(29.3)	
		조끼	18(6.9)	15(9.1)	
		가디건	5(1.9)	11(6.7)	
	무늬	민무늬	178(70.1)	133(77.8)	24.25 ***
		줄무늬	21(8.3)	8(4.7)	
		체크무늬	39(15.4)	12(7.0)	
		기타	16(6.4)	18(10.6)	
	색상	빨강계열	22(13.0)	33(31.1)	33.89 ***
		주황계열	3(1.8)	2(1.9)	
		노랑계열	11(6.5)	1(0.9)	
		초록계열	10(5.9)	12(11.3)	
		파랑계열	30(17.8)	9(8.5)	
		보라계열	2(1.2)	7(6.6)	
		갈색계열	23(13.6)	11(10.4)	
		무채색	68(40.3)	31(29.2)	
상의	형태	티셔츠	273(78.4)	167(57.4)	98.81 ***
		남방	75(21.6)	51(17.5)	
		원피스	0(0.0)	73(25.1)	
		기타			
	무늬	민무늬	214(63.7)	205(73.5)	45.41 ***
		줄무늬	62(18.5)	19(6.8)	
		체크무늬	31(9.2)	13(4.7)	
		기타	29(9.7)	42(15.1)	
		빨강계열	33(13.4)	67(32.8)	
상의	색상	주황계열	7(2.8)	12(5.9)	62.07 ***
		노랑계열	22(8.9)	9(4.4)	
		초록계열	6(2.4)	4(2.0)	
		파랑계열	57(23.1)	17(8.3)	
		보라계열	1(0.4)	5(2.5)	
		갈색계열	11(4.5)	6(2.9)	
		무채색	110(44.5)	84(41.2)	
하의	무늬	민무늬	307(86.5)	231(78.0)	28.43 ***
		줄무늬	22(6.2)	15(5.1)	
		체크무늬	10(2.8)	27(9.1)	
		기타	16(4.5)	23(7.8)	
	색상	빨강계열	5(2.2)	62(31.0)	107.40 ***
		주황계열	1(0.4)	11(5.5)	
		노랑계열	6(2.7)	11(5.5)	
		초록계열	12(5.4)	6(3.0)	
		파랑계열	53(23.8)	32(16.0)	
		보라계열	3(1.3)	5(2.5)	
		갈색계열	42(18.8)	8(4.0)	
		무채색	101(45.3)	65(32.5)	
신발	형태	운동화	212(67.3)	84(34.7)	67.92 ***
		구두	72(22.9)	133(55.0)	
		기타	31(9.8)	25(10.3)	
	색상	빨강계열	13(6.6)	50(32.5)	62.31 ***
		주황계열	1(0.5)	7(4.5)	
		노랑계열	3(1.5)	3(1.9)	
		초록계열	2(1.0)	2(1.3)	
		파랑계열	22(11.1)	7(4.5)	
		보라계열	1(0.5)	3(1.9)	
		갈색계열	27(13.6)	4(2.6)	
		무채색	129(65.1)	78(50.6)	

여아의 한복 차림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복 차림은 다른 시기보다 특히 1990년대에 많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형태가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의 형태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색동저고리는 모든 시기에 착용되었으며, 당의는 1990년대에 특히 선호되었다. 상의 무늬는 80년대 이전까지는 민무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꽃무늬와 같은 식물무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도 민무늬나 기하무늬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색상에서는 모든 시기에 걸쳐 빨강계열이 가장 선호되었는데,

〈표 7〉 남아의 한복 차림에 대한 분석 n=23(%)

측정내용			전체
상의	형태	저고리	4(17.4)
		저고리/조끼	3(13.0)
		저고리/조끼/마고자	16(69.6)
	무늬	민무늬	11(52.4)
		동물무늬	2(9.5)
		기하무늬	3(14.3)
		추상무늬	3(14.3)
		자연무늬	2(9.5)
	색상	빨강계열	9(60.0)
		주황계열	2(13.3)
		파랑계열	1(6.7)
		보라계열	1(6.7)
		갈색계열	1(6.7)
		흰색	1(6.7)
하의	무늬	민무늬	16(94.1)
		기타	1(5.9)
	색상	빨강계열	8(61.5)
		노랑계열	2(15.4)
		파랑계열	2(15.4)
		회색	1(7.7)
신발	형태	운동화	16(100.0)
	색상	빨강계열	1(11.1)
		파랑계열	1(11.1)
		흰색	4(44.4)
		검정	3(33.3)

다른 시기와 비교해볼 때 1990년대에는 비교적 다양한 색상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의 무늬에서도 상의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까지는 민무늬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 와서는 식물무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색상으로는 상의와 마찬가지로 빨강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노랑계열과 초록계열도 여아의 한복 치마에서 많이 사용되는 색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한복 차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신발이 치마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은 관계로 조사된 수가 비교적 적다. 조사된 경우를 살펴보면 신발의 형태는 운동화와 구두가 절반 정도로 착용되었으며, 색상은 검정색과 빨강계열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성복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의 아동복의 변천사를 실제 아동 사진을 대상으로 스타일, 형태, 색상, 무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기별 아동복의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화가 시작된 60년대의 아동복은 비교적 단조롭고 획일적인 디자인과 민무늬가 주를 이루었다. 70년대는 아동복 브랜드의 등장과 함께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하여 비교적 다양한 형태, 색상, 무늬 및 장식적인 요소가 나타났으나, 의복의 형태 자체는 성인 의복의 모방으로 아동에게 적절한 디자인의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요소별

〈표 8〉 여아의 한복차림에 대한 분석 n=37(%)

측정내용			1960년대 (n=2)	1970년대 (n=10)	1980년대 (n=1)	1990년대 (n=24)	χ^2 값
상의	형태	민저고리	0(0.0)	0(0.0)	0(0.0)	3(12.5)	22.68
		반회장 저고리	0(0.0)	4(40.0)	0(0.0)	9(37.5)	
		삼회장 저고리	0(0.0)	0(0.0)	0(0.0)	1(4.2)	
		색동 저고리	2(100.0)	6(60.0)	1(100.0)	3(12.5)	
		당의	0(0.0)	0(0.0)	0(0.0)	8(33.3)	
	무늬	민무늬	2(100.0)	8(80.0)	1(100.0)	4(17.3)	24.03**
		식물무늬	0(0.0)	1(10.0)	0(0.0)	16(69.6)	
		기하무늬	0(0.0)	1(10.0)	0(0.0)	3(13.0)	

〈표 8〉 계속

측정내용			1960년대 (n=2)	1970년대 (n=10)	1980년대 (n=1)	1990년대 (n=24)	χ^2 값
상의	색상	빨강계열		3(60.0)	1(100.0)	10(52.0)	29.11**
		노랑계열		0(0.0)	0(0.0)	3(12.0)	
		초록계열		2(40.0)	0(0.0)	4(16.0)	
		파랑계열		0(0.0)	0(0.0)	1(4.0)	
		보라계열		0(0.0)	0(0.0)	1(4.0)	
		흰색		0(0.0)	0(0.0)	3(12.0)	
하의	무늬	민무늬	2(100.0)	4(50.0)	1(100.0)	1(4.2)	20.53**
		식물무늬	0(0.0)	3(37.5)	0(0.0)	19(79.2)	
		동물무늬	0(0.0)	1(12.5)	0(0.0)	0(0.0)	
		기하무늬	0(0.0)	0(0.0)	0(0.0)	4(16.7)	
	색상	빨강계열		4(57.1)	0(0.0)	10(55.6)	10.83*
		노랑계열		0(0.0)	1(100.0)	3(16.7)	
		초록계열		3(42.9)	0(0.0)	0(0.0)	
		보라계열		0(0.0)	0(0.0)	1(5.6)	
		흰색		0(0.0)	0(0.0)	4(22.2)	
신발	형태	운동화	2(100.0)	1(50.0)	0(0.0)	4(50.0)	7.71
		구두	0(0.0)	0(0.0)	1(100.0)	4(50.0)	
		고무신	0(0.0)	1(50.0)	0(0.0)	0(0.0)	
	색상	빨강계열		2(100.0)	0(0.0)	2(33.3)	2.67
		흰색		0(0.0)	0(0.0)	1(16.7)	
		검정		0(0.0)	1(100.0)	3(50.0)	

분석을 보면, 외의, 상의에서 이전 시기보다 다양한 형태가 착용되었으며, 민무늬 외에도 체크무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하무늬, 꽃무늬 등 다양한 무늬가 사용되었다. 색상에서는 남녀 모두 회색 등의 무채색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남아는 파랑계열, 갈색계열을 많이 착용한 반면, 여아는 빨강계열을 두드러지게 많이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여아 의복에서는 바지의 착용이 다른 시기보다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70년대의 유니섹스 유행 경향의 결과로 생각된다. 1980년대에 와서 아동복은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아동에게 적절한 디자인과 사이즈 체계가 성립되었으며, 아동복 시장이 세분화되고 의복 스타일에서의 개성화와 패션화가 시작되었다. 80년대 아동복은 아시안게임, 올림픽 개최 등의 사회적 영향으로 캐주얼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남녀 아동 모두에서 점퍼, 티셔츠, 운동화의 차림이 일반적이었으며, 청바지 또한 남녀 아동 모두에게 선호되었다. 1990년대에 와서는 출산율의 감소와 아동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의 증가로 아동복 시장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아동복이 개성화, 명품화, 다양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90년대에는 의복 형태와 무늬가 비교적 다양하게 착용되었으며, 결혼식 상황을 고려한 한복 차림도 많이 증가하였다. 색상에서는 남녀 아동 모두에서 무채색에 대한 선호 경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남아는 파랑계열, 여아는 빨강계열에 대한 선호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시기별에 따른 아동복에서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격식 수준을 제외한 모든 측정 항목에서 시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에서는 90년대에 와서 결혼식 상황을 고려한 한복 차림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의복 형태는 시간의 증가와 함께 더 다양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무늬의 경우는 모든 시

기에 걸쳐 민무늬가 가장 많이 착용되었으나, 70년대는 체크무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줄무늬는 그 빈도는 그리 많지 않지만 비교적 여러 시기에 걸쳐 꾸준히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동복의 모든 측정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아는 캐주얼한 스타일과 민무늬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파랑과 검정, 회색이 선호되는 색상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한복과 격식 차린 의복을 더 많이 보이며 꽃무늬, 기하무늬 및 다양한 종류의 무늬를 사용하고 색상에서는 빨강, 주황, 노랑, 흰색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의 아동복은 지난 1960년대 아동복 시장이 시작된 이래로 각 시기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 등의 다양한 사회현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아동 사진을 대상으로 아동의복에서의 형태, 색상, 무늬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아동복 패션의 변화경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아동복에서의 색상, 무늬, 형태의 선호 경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아동복 디자인 기획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구양숙, 이승민, 박현희 (2000). "신세대 주부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아동복 상표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권 4호.

금기숙 외 9인 (2002). *현대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김희숙 (1994). "국내 유·아동복 시장의 동향 분석." *복식* 22호.

박규원, 조윤아 (2002). "유, 아동복 브랜드 디자인에 관한 연구." *시각디자인학 연구* 11호.

"2001년 유·아동복 시장구조 분석" (2001년 5월 10일 [2007년 3월 25일 검색]). *삼성디자인뱅크*,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

이정희 (2005). "학령기 아동의 유행의복에 대한 이미지 지각과 선호의복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권 1호.

정현주 (2001). "유·아동복 유통 집약도." *한국의류학회지* 25권 6호.